

해남군, 경제 활로 모색 토론회

군민중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토의 지역 농산물의 효과적인 소비방안 등



해남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민들이 머리를 맞댔다. 해남군은 26일 해남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경제주체, 군민중심 지역경제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남군 경제살리기협의회 위원과 소상공인 연합회, 외식업주부회원, 군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의지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광주전남연구원

김진이 박사를 초빙해 '지역사랑상품권 유통현황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으며, 분야별 패널들의 정책제안이 이뤄졌다.

최석영 군 경제산업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상가·상품을 이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돼야 한다"며 해남사랑상품권을 이용한 지역상가·상품의 이용 활성화를 소개했다.

또한 경제살리기협의회 이웅 부위원장은 특판장 개설과 역사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활

성화를, 소상공인연합회 정우선 회장은 5인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도 청년지원금을 지원하는 일자리 늘리기를 제안했다.

해남고구마빵으로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파당시에 이현미 대표의 고구마 빵 탄생 스토리를 소개하며 해남 농산물의 효과적인 소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한 외식업해남군지부 정명승 지부장은 지역특화음식의 발굴 필요성을, 해남신문 노영수 부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입 방안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군민들과 상인들이 직접 의견을 나누며, 활발한 소통의 자리가 마련돼 의미를 더했으며, 논의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명현관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군민들부터 지역상가, 지역상품을 이용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토론회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남=서명환 기자

보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포럼 연다

문화 및 경제 활성화 아이디어 기대

보성군은 29일 오후 4시 보성군 북재2층 북재홀에서 생활체육과 축제문화의 결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새한국문화산업포럼(대표 이강복)에서 주최하며 보성군과 새한국문화경제학회가 후원하는 이번 포럼은 새한국문화산업포럼의 2019년도 다섯 번째 포럼으로, 통합스포츠 문화축제로 생활체육 발전 방안 마련 등 총 세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지역의 문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선한 아이디어가 제시될 전망이다.

2019년 4월 보성군은 제58회 전라남도체육대회를 개최하였는데, 단순 체육대회로의 개최가 아

닌 체육과 축제문화의 결합을 통해 체육축제로 거듭났다는 평을 받으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5월에는 보성의 5대 축제를 통합하여 60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보성을 방문하였고, 축제 기간 동안 보성군의 숙소 및 식당에서는 발 디딜틈이 없는 등 약 76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다.

지난 3월에는 U-17 축구 국가대표팀이 전지훈련을 위해 방문하여서 구슬땀을 흘렸으며 그 결과 2019년 U-17 월드컵대회에서 8강까지 오르는 성적을 거두는데 기여하였다.

11월에는 2020년 도쿄올림픽

준비를 위해 국가대표 역도팀이 전지훈련을 위해 방문하는 등 남도의 스포츠진흥메카로서 자리 잡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다.

보성군은 이번 포럼을 통해 남해안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또한 웰니스 관광의 강자로 거듭나고 있는 보성군이 스포츠와 축제문화, 여행과 관광이 접목된 타시군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스포츠 문화의 트렌드를 제시하고 이끌 수 있는 지혜와 아이디어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은 오는 11월 29일부터 2020년 1월 5일까지 제1회 보성차밭빛축제를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개최한다.

보성=유인일 기자

나주시 중부노인복지관에서 100세 시대 준비

내달 1일부터 회원 모집 신분증, 사진 1매 지참

나주시는 지역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을 위한 복지 허브로 자리매김해온 나주시중부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신규 회원을 내달 1일부터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4년 문을 연 복지관은 2017년 5월부터 나주시 직영체제로 전환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여가·건강·일자리·문화향유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회원 신청은 나주시 관내 거주

하는 만60세 이상 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신분증과 사진 1매를 지참해 본인이 직접 복지관에 방문하면 된다. 배우자는 60세 미만이면 가능하다.

복지관은 회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신입 회원 교육을 통한 복지관 이용안내와 이용자 수칙을 설명한 후, 회원증을 발급한다.

회원증 소지 회원은 복지관 내 당구장, 탁구장, 체력단련실, 노래방 등 자율이용프로그램을 비롯해, 교양(한글·영어회화), 정보화(컴퓨터·스마트폰 활용), 취미·건강(서예·댄스·요가·합창단) 등 총 25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00원의 저렴한 가격에 중식을 이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한 회원들은 무료다.

복지관 관계자는 "100세 시대를 맞아 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교류의 장으로서 배움의 열정에 부합하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경륜을 통해 지역 발전에 공헌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경로효친(敬老孝親)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나주시중부노인복지관은 나주시 금성길 74(성북동)에 위치해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복지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양군의회, 상생 농업 위한 '소통의 장' 빛났다

200여 농업인 참여 농업인과 대화 성료



담양군의회는 최근 담양리조트에서 상생의 농업실현을 위한 농업인 공청회를 마련, 농촌의 발전 방향 특별강연과 현장의 소리를 듣는 '농업인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최형식 담양군수, 이개호 국회의원, 농협관계자를 비롯한 담양군의 주역인 농·

축산·임업인 등 200여 명의 농업인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어려운 농업현장의 생생한 소리와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군의회 차원의 역할과 대응 등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농업인과 대화는 미래 먹거리 구축을 위한 농업현안 문제에 대해 주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대의기관인 담양군의회가 다가오는 농업현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농업 인력난 해소방안 ▲작업장 환경개선지원 ▲무허가축사 양성화방안 마련 ▲축산시설 거리제한 등 제도적 장치 완화에 대한 건의와 ▲임산물 수확 작업로 개설 지원 ▲친환

경 유기질 비료지원 등 총 22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또한 WTO 개도국 특혜제지 반대 결의문을 담양군의회에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번 공청회가 1회성이 아닌 매년 2회 이상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김정오 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농업피해가 가시화되고 올해는 여러 차례 태풍이 잦아 인명과 재산, 농작물 피해가 컸던 만큼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 상황과 국제사회 요구를 스스로 이겨 낼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의회도 농업인은 물론 모든 분야에서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농업의 선진화와 농업인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여수 마래2터널, 보수공사 조기 완료...터널 개통



여수시는 마래2터널 보수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지난 25일부터 터널을 개통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터널 낙석 위험성 제거를 위해 11일부터 29일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이 기간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후 여수시는 시민과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공사에 속도를 냈고, 그 결과 공기를 4일 단축했다.

시 관계자는 "공사 기간 불편을 감내해준 운전자분들에게 감사드

린다"면서 "안전한 터널을 만들기 위해 특별점검과 보수정비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로 터널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조선인과 중국인 노동자들이 정과 망치만으로 터널을 만든 아름이서린 곳이다.

여수=김도현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일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